

남도미술 ‘선의 미학’ 담은 화가들 LA서 통할까

호랑가시나무창작소, 28일부터 LA한국문화원서 특별전

뉴욕 이어 미국 서부 거점 마련 귀주 주목 총 25점 선보여
한국화 선 조형미학 탐구… 6m 대작·6폭 병풍 자개산수 등
정헌기 대표 “호남 지역 미술의 맥 짚을 수 있는 자리될 것”

전통 한국화에서 선이 갖는 미학을 전남광주를 연고로 활동을 벌여온 작가들의 작품들을 통해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는 전시가 이역만리 미국에서 마련된다.

광주특별시 남구 양림동 소재 호랑가시나무창작소(대표 정헌기)는 미국 LA한국문화원(원장 이해돈)과 함께 ‘남녘, 선의 공간’이라는 명칭으로 한 특별전을 오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갖는다고 12일 밝혔다. 출품작은 ‘시간을 넘어, 전통은 동시 대미술로’를 주제로 총 25점을 선보인다.

이번 특별전은 LA한국문화원의 전시에 관한 강한 추진 의지가 바탕이 돼 열리게 된 것으로, 그동안 지역미술계가 주로 뉴욕과 빈번한 교류와 창구 역할을 삼아온데 비해 미국 서부 주요도시에서 열린다는 점이 여러 의미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번 전시가 미국 서부 거점 마련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시에 대한 방향은 ‘남녘, 선의 공간’이라는 명칭에 모두 담겨져 있다. 명칭에서 선은 그림의 첫 출발로, 이번 전시에서 미국 미술계가 주로 한국의 서양화에 궁금해하기보다는 한국의 전통 그림에 관심이 높은 만큼 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서양화에서의 선이 아니라 전통 한국화에서의 선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듯 읽힌다. 전통 회화에서의 선이 갖는 조형미학을 탐구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렇다보니 이번 전시에 출품하는 작가들 중선으로 그들을 남득할 만한 이들의 작품이 상당히 망라된 듯하다.

출품 작가로는 의재 허백련 선생을 비롯해 오지

호 조방원 한희원 최석현 김선두 윤남웅 김상연 이이남 박소빈 이정록 정해나 하루k 박설 벨린프로젝트(사운드아트) 오지영씨 등이다. 이중 전남미술관 소장 작품으로는 의재 허백련 오지호 조방원 김선두 하루K 등 5명 여섯작품이 포함돼 있다. 여기서 낯선 벨린프로젝트는 실험적 작업을 구현하고 있는 콜렉티브팀으로, 가야금 산조를 하는 이영애 명인과 독일 시(詩), 판소리(장구)가 합체돼 모스 부호처럼 센서통에서 소리를 나오게 하는 형식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오지영 작가는 광주출생으로 수피아여고를 거쳐, 도미한 가운데 미국 LA를 연고로 활동을 펼쳐왔다.

아울러 이번 전시에 출품할 신작으로는 윤남웅 김상연 박소빈 이정록 작가의 작품들이다. 출품작가들마다 선에 대해 특화된 작품들이 하나로 모아진 듯하다. 의재 허백련 선생의 작품 ‘매창화능’(1964, 전남미술관 소장)은 이견회 컬렉션 작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방원 선생의 작품은 4m 크기의 병풍 형태를 띠고 있고, 박소빈 작가의 작품은 새롭게 제작한 6m 대작으로 신작이다. 이외에 최석현 작가의 6폭 병풍 형태로 4m 크기의 자개산수인 ‘무릉도원경’을 펼친다.

전시장 구성을 새롭게 해 더 많은 현지 관람객들을 유도할 방침이다. 1층 미디어 관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사이에 박소빈 작가의 6m 대작 설치에 이어 이이남 작가의 미디어 산수와 조방원 선생의 4m 작품, 그리고 자개산수를 배치, 호기심을 극대화할 수 있는 큐레이팅을 구현하기로 했다. 이는 관람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한 의도다.



박소빈 작 '미르'



의재 허백련 작 '매창화능' (1964, 전남미술관 소장)



오지호 작 '화물선' (1970, 전남미술관 소장)

특히 이번 전시를 통해 LA 한국문화원 별관에는 미디어 패널이 갖춰져 있는 만큼, 추후 광주 미디어 아티스트들을 이 공간과 연계시키는 복안까지 강구하고 있어 그 실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욕 중심의 미술교류가 LA라고 하는 미국 서부와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미술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헌기 대표는 “이번 전시를 위해 지난해부터 이 야기가 됐고, 이해돈 원장이 전주 출생으로 호남미

술에 대한 애착이 강해서 의지를 가지고 전시를 성사시켰기에 가능했다. 광주시로부터 2000만원의 지원이 있었지만 작품 운송비가 4000만~5000만원에 달하는 등 전시외적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전시는 남종화와 문인화로 이어지는 호남 지역 미술의 맥을 짚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전시기간이 12월 2일까지인데는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라서 그것을 피해 앞당겨서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개막식은 28일 오후 6시, 개막식에는 정헌기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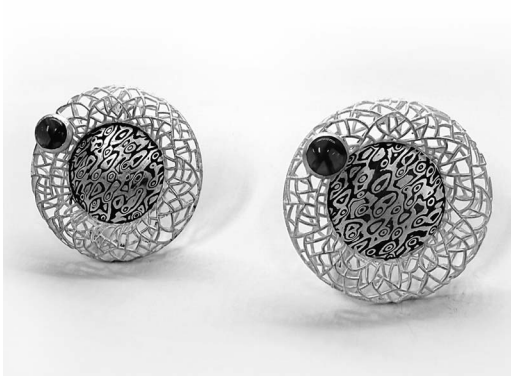
표를 포함해 이지호 전남미술관 관장, 한희원 이이남 박소빈 작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이지호 관장은 남도미술을 설명할 복안이다. 축하 공연팀으로 참가하는 광주 남구의 장천하예술단의 공연이 마련된다. 장천하예술단은 개막식 공연 외에도 LA시청과 뉴욕UN본부 공연을 잇따라 펼친다. 정헌기 대표의 작품 설치와 개막식 참석차 18일 출국해 오는 11월 1일 귀국할 계획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작가의 감각적 표현…현대 주얼리 가능성 탐구

윤재원 광주대 교수, 제5회 개인전

내일부터 호심미술관에서 30여점 출품



‘Vein 2026-08-2 (brooch)’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 패션주얼리디자인학과 윤재원 교수가 제5회 개인전을 열고 디지털 기술과 인간의 손이 빚어내는 현대 주얼리의 새로운 조형 가능성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는 주얼리와 금속제품 등 30여 점이 전시된다. 윤 교수는 CAD/CAM과 RP·3D 프린팅의 정밀한 기술에 금속을 자르고 두드리고 다듬는 수(手) 작업을 더해 디지털의 정교함과 손의 감각이 공존하는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구현했다.

특히 ‘동질성과 이질성’, ‘기계와 손의 화해’, ‘질서 속의 자유’를 주요 화두로, 기계의 정확성과 인간의 손에서 비롯되는 우연성과 불완전성이 만나 만들어내는 미적·조형적 가능성을 탐구한다. 서로 다른 제작 방식의 대비와 결합을 통해 현대 주얼리

의 표현 영역을 확장하려는 시도가 돋보인다.

이번 전시는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대립적인 개념이 아닌 서로의 한계를 보완하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작의 동반자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첨단기술과 장인적 수작업의 조화를 통해 기술과 인간의 감성이 공존하는 현대 주얼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초주 호심미술관장은 “이번 전시는 디지털 기술의 정밀성과 작가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감각적 표현이 어떻게 하나의 예술언어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기술이 인간의 창의성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표현 가능성을 확장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있는 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는 15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광주대 호심미술관.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문순득 표류 여정으로 만나는 호남과 세계

한국학호남진흥원 김지윤 초청 강연

호남의 섬과 바다가 세계와 연결된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는 인문학 강연이 열린다. 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홍영기)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 동부청사 이순신강당에서 김지윤 박사(사진)를 초청해 제2회 인문학 강연행사를 갖는다.

이번 강연은 ‘호남의 오딧세이, 세계를 만나다’를 주제로 마련된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주제인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와 연계해 흩어짐이 문순득의 표류 여정을 통해 호남의 섬과 바다가 세계와 만난 역사적 장면을 조명한다.



분석센터장 등을 역임했으며, 최근 JTBC ‘사기꾼들’에 출연하는 등 방송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 박사는 이번 강연에서 문순득의 표류기를 단순한 개인의 모험담이 아닌 19세기 초 세계사의 변화 속에서 살펴볼 예정이다. 한 개인의 경험이 기록으로 남고, 그 기록이 200여년 뒤 당시의 세계를 이해하는 역사 자료가 된 과정을 통해 가족유산의 가치도 되새긴다.

정재경 기자 view2018@

문화리뷰



전자광 (사) 광주장애예술인협회 대표

광주에서 서른 해 동안 붓을 놓지 않은 장애인 작가가 있다. 그동안 그린 작품이 수백 점이다. 기량도 세월도 모자랄 것이 없다. 정작 아쉬운 것은 그 작품을 걸 자리다. 개인전 한 번을 열려면 대관료와 도록, 운송과 설치 비용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 접근이 가능한 전시 공간은 손에 꼽히고, 그마저 일정이 차 있다. 서른 해의 축적이 창고에 머무는 일은 작가 한 사람의 손해로 끝나지 않는다. 그

예술의 문턱, 도시의 품격

그림을 볼 기회를 잃는 쪽은 우리다. 남도는 예부터 소리와 가락의 땅이다. 장애가 있다고 그 끼가 비껴가지 않는다.

진도에서, 목포에서, 담양에서 노래하고 연주하는 이들을 만난다. 문제는 설 무대가 없다는 것이다. 목포에서 광주까지 나오면 하루를 꼬박 쓴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그렇다치자. 다른 점은, 하루를 버리고 나와도 오를 무대가 없다는 사실이다. 연습할 공간도, 반주도, 음향과 이동 지원도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 조금만 뒷받침하면 훨씬 멀리 갈 사람들이다. 무대에 서는 횃수가 쌓이면 기량이 오르고, 기량이 오르면 밖으로 나간다. 장애예술은 이미 국제 무대에서 당당한 장르가 되었다. 남도의 소리를 가진 연주자가 그 흐름을 타지 못할 이유가 없다.

다만 지금은 첫 무대가 없어, 제능이 조용히 사

그라든다. 이 이야기를 딱한 사연으로 읽지 않았으면 한다. 몇몇의 사정이 아니라 제도의 공백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 2020년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법률이 만들어졌고, 그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맡겼다. 문화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는 선언이었다. 다만 선언 이후가 더디다. 법은 말했으나 그 말을 담은 그릇이 지역에는 아직 없다.

나는 이 문제가 광주에서 특별히 더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광주는 인권을 도시의 이름으로 삼아온 곳이다. 그런 도시의 품격은 거창한 구조가 아니라 가장 먼저 배제되는 이들이 어디쯤 서 있는지로 드러난다. 장애인이 관객석에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넘어, 무대와 전시장의 주인이 될 수 있는가. 그 물음에 답하지 못하는 인권 도시는 절반의

인권 도시다. 문화의 관점에서도 그렇다. 예술은 다른 몸과 다른 감각이 세계를 어떻게 겪는지 보여줄 때 태어난다. 보이지 않는 사람이 그리는 빛, 들리지 않는 사람이 짓는 리듬, 느리게 움직이는 손이 만드는 선은 우리가 가진 적 없는 시야를 선물한다.

장애예술은 누군가를 돕는 일이 아니라 우리 문화의 미개척지를 여는 일이다. 돕자는 말로는 이 가치를 설명할 수 없다. 그렇다면 왜 지금인가.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특별시로 나아가면서 많은 것이 새로 그려지고 있다. 조직과 조례, 예산의 구조가 지금 짜이는 중이다. 제도가 새로 설계되는 시기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다음 기회를 오래 기다려야 한다. 이미 지어진 건물에 방 하나를 더 넣기는 어렵다. 설계 단계에서 함께 그려야 한다. 더구나 장애예술을 위한 공간은 대부분 수도권에 있다. 광역 단위에서 창작과 발표, 교육과 유통을 잇는 거점은 여전히 드물다. 광주의 작가에게는 거점이 없고, 전남의 작가에게는 그 없는 거점마저 멀다.

전남광주장애예술인지원센터를 제안하는 이유

가 여기에 있다. 광주를 거점으로 삼되 전남의 권역을 함께 잇는 구조여야 하고, 작업 공간과 발표 기회, 접근성 지원과 교육, 유통을 한자리에 다뤄야 한다.

무엇보다 운영에 장애예술인 당사자가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당사자 없이 만들어진 기관은 당사자를 위한 기관이 되지 못한다. 시민들끼리는 다른 부탁을 드리고 싶다. 예산과 조례는 행정의 몫이지만, 예술은 보는 사람이 있어야 완성된다. 전시장에서 작품 앞에 서 주시는 일, 공연장에서 박수를 쳐 주시는 일, 그 평범한 행위가 한 작가를 계속 작업하게 만든다.

오는 26일 광주시의회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정책포럼을 연다. 국회와 의회, 장애예술 분야 기관과 광주·전남의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요구를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라 설계를 시작하는 자리로 만들고자 한다. 문턱을 낮추는 일은 누군가를 들여보내 주는 일이 아니다. 그 문턱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세계를 되찾는 일이다. 통합특별시가 그리는 새 설계도에 그 자리를 함께 그려 넣기를 바란다.